봉합 나선 安…대답 없는 非安

국민의당 의총 참석 "힘 모아달라…바른정당과 통합 불변"

동교동계 "마음 떠났다"…이달말 끝장토론 결과 관심 집중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론으로 촉발된 국민의당 내부의 노선 갈등과 관련, 안철수 대표가 당내 의원들과 접촉면을 늘리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안 진영은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당내 호남 의원들은 정체성을 고리로 궁극적으로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외연 확장을 통해 강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중진 의원들이 중심 역할을 해 주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과 일단은 정책 연대, 나아가 선거연대까지 시도해볼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바른정당과의 중도 통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안 대표는 "당의 진로에 대해서는 2주 후에 의원들이 전부 모여 장시간 토론하기로 했다"며 "정체성을 유지하며 외연 확장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며 대표로의 의무"라고 밝혔다.

외연 확대를 위해 자유한국당과도 함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왜 그렇게 진도를 막 나가느냐"며 선을 긋고 '햇볕정책과 호남정신이 당의 정체성'이라는 호남 의원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고 있는 중도개혁의 길, 그 큰 범위에 다 포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친안계로 분류되는 송기석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설전을 벌인) 유성엽 의원을 만나 오해를 푸는 등 갈등 국면은 어제를 기점으로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통합론과 관련, "당내에 정책연대 및 선거연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다. 다만 통합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가 있었던 것"이라며 "저는 여전히 (통합)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12월까지 통합 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에도 "맞다. 저희가 중도개혁의 외연을 확장한다면 함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에 나와 '국민의당은 분당이나 탈당 없이 한동안 가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건 모르겠다"며 "안 대표가 주적을 잘못 설정하고 있으며 리더십이 분명히 새롭게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행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런 것(분당·탈당)보다는 봉합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어제도 몇몇 의원들을 만나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말라. 국민들이 안 그래도 가난한 집에서, 망하는 집으로 가는구나라고 할 수 있다. 당을 다시 재건해 보자'고 말했다"면서도 "하지만 흐르는 물을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권노갑·정대철 고문 등 주로 동교동계 원로들로 구성된 당 고문단도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고문들의 마음이 당에서 떠났다"며 "우리의 정체성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중도개혁 노선이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정체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고 밝혀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께로 예정된 국민의당 진로를 둘러싼 '끝장토론' 성격의 의원총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 주장을 굽히기 않고 호남 의원들이 정면에서 반발한다면 국민의당은 분당의 위기 국면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무성-유승민, 입맞춤도 못막은 이별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바른정당 자강파 유승민 의원과 탈당한 뒤 한국당으로 입당한 김무성 의원 간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심기일전' 바른정당

"중도보수 개혁세력 통합 매진" 국회서 단합 다져

두 동강에 이어 세 동강 날 뻔했던 바른정당이 잔류파 의원들의 중도보수통합 추진 합의를 계기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전당대회까지 한 달이라는 시한이 있지만 '2차 탈당 사태'라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끈 만큼 의원들은 물론 당직자들도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당 대표 후보 연석회의에는 모처럼 많은 의원이 한 데 모여 단합의 의지를 다졌다. 탈당 명단에 이름을 올린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 이날 회의에도 불참해 권오을 최고위원이 회의를 주재했다.

권 최고위원은 "탈당 사태 이후 조금 혼란스러웠던 당내 분위기가 안정돼 간다"며 "13일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여러분의 기대 이상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틀 전 회의때 눈물까지 보였던 진수희 최고위원도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격으로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회의다. 창당 동지들이 떠나가고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데 대해 지도부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초대 당 대표를 지낸 정병국 의원은 일단 2차 탈당이라는 파국은 피한 만큼 더 단합하자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날 아침 회의 때만 해도 유승민 의원을 '우회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강경 자강파들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었다. 정 의원은 "진정한 통합이 무엇인지 바른정당이 보여줄 때가 왔다"며 "보수와 중도까지 포함한 대통합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겨냥해 "한국당이 홍준표 당이냐. 탈당한 9명은 홍 대표와 밀거래해서 들어간 것이냐"며 "그분(탈당 의원)들의 입장을 헐뜯는 홍 대표를 보면 이래서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회안전망 구축" vs "미래세대 부담"

여야, 예산심사 간극 못좁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일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지만 야당은 재정 건전성을 나쁘게 해 미래세대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는 복지 지체국"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을 빨리 합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야당의 비판처럼 재정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공무원 증원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재정 경직성을 초래해 설계 변경이 대폭 필요하다"며 "아동수당은 2050년에 100조 원 가까운 재원이 소요될 정도로 점점 늘어날 텐데,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아동수당의 효과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의견이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은 "노양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사학연금 등은 지금 40대가 은퇴하는 2040년께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련 기금 소진율은 더 높아서 (고갈 시점이 2040년께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되는 '다스'의 세금 물납 문제도 거론됐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어 기재부는 다스로부터 5만5800주를 받았다"며 "기재부가 세금을 현물로 받았으면 처분을 하든지, 현찰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저당이 잡힌 부동산은 물납을 못 받고 있어 (선저당 잡힌) 부동산도 받는다든지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

탈당 8人 '머쓱'한 한국당 복당

재입당 간담회…10개월만에 명분 없이 복귀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을 탈당한 8명의 의원은 9일 자유한국당에 복당했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재입당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복당을 공식화했다. 복당한 의원들이 먼저 회의장에 도착해 약 10분간 한국당 지도부를 기다렸다. 이후 회의장에 들어온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재입당한 의원 8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직 정치적 앙금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그 앙금을 해소하고 좌파정부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국민적 여망으로 우리가 다시 뭉치게 됐다"며 "앞으로 모두 힘을 합쳐서 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도 "가장 큰 것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 오만이 갈수록 극에 달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을 힘을 합쳐 극복하자는 (복당한 의원들의) 일치된 의사가 잘 관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무성 의원은 "서로 간 생각의 차이나 과거의 허물을 묻고 따지기에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다고 생각했다"며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국민의) 요청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보수대통합에 제일 먼저 참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4차산업혁명·미세먼지·청년미래 특위 결의안 의결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등 3개 특위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중 4차 산업혁명 특위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원천기술 개발 지원, 유관 분야 정책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이다. 미세먼지 대책 특위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건강피해 예방에 대한 정부 대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또 청년미래 특위에선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여야 교섭단체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미세먼지 대책 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청년미래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당이 4차 산업혁명 특위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각 특위는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되고,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정 시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4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2017. 12. 16(토) 오후 2:40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A.)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